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WSJ: 미 기업들, 트럼프 관세 시행 전에 제품 비축한다
- Bloomberg: 최근 미 일자리 감소는 허리케인 등 일시적인 탓
- Bloomberg: 최근 미 대학 졸업자에게 노동 시장 '냉각'

[미국 금융]

- WSJ: 자동차 용자 연체율에 월가 부담 느끼지 않는다
- FinanceYahoo: 엔비디아 실적 발표, 강세장에서 주요 시험대

[트럼프 행정부]

- Bloomberg: 트럼프, 내연차 연비 기준 완화한다
- WSJ: 아시아 경제에 트럼프 관세 정책 외에 위협 요소는

[주택]

- Bloomberg: 높은 미 모기지율, 그대로 유지된다

[오일]

- Bloomberg: 유가 상승... 지정학적 위험과 미국 비축량 증가 때문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Bloomberg: Target 수익 전망 하향 조정
- CNBC: TJ Maxx "연말 쇼핑 시즌 순조로운 출발"
- Bloomberg: 뉴욕주, 약국 체인에 새로운 규제 시행
- NYT: 창고 로봇은 아직 고도화되지 못했다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WSJ: American Companies Are Stocking Up to Get Ahead of Trump's China Tariffs

미 기업들, 트럼프 관세 시행 전에 제품 비축한다

- 미 기업들은 트럼프의 관세 인상 시행 전에 해외 제품 구입을 서두를 계획이다. 또한 이들은 높은 관세를 시행할 경우 제품 가격을 올리거나, 다른 해외 수입처를 찾아야 할지 검토하고 있다.
- 이미 중국의 수출은 확대되고 있다. 10월 출하 규모는 전년 동월에 비해 13% 증가했다. 9월의 연율 증가세 2.4%보다 크게 증가한 수준이다. 월가 이코노미스트들은 중국의 수출 성장세가 향후 수개월 동안 견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미국은 중국 수출의 최대 수입국이다. 작년에만 컴퓨터, 전자제품 등을 비롯해 4천3백억불을 수입했었다.

WSJ 기사

Bloomberg: State-Level Data Suggest US Payroll Weakness Is Likely Temporary

최근 미 일자리 감소는 허리케인 등 일시적인 탓

- 지난달에 허리케인이 발생해 플로리다 등의 일자리가 감소했으며, 보잉사 파업이 있었다. 이는 미 전역의 일자리 감소가 일시적인 발생이란 점을 시사하고 있다.
- 허리케인 영향을 받은 플로리다의 일자리는 지난 10월에 3만8천개가 줄어 지난 2017년 이래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보잉사 파업이 일어난 워싱턴주도 3만5천9백개의 일자리가 줄었다고 화요일 연방노동청은 발표했다.
- 이와 관련 11월 1일 발표된 10월 일자리는 지난 2020년 이래 고용 증가율이 가장 느린 수치를 보여주었다.
- JP 모건의 분석가인 Abiel Reinhart는 과거의 허리케인을 인용하면서 11월 일자리 보고서는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Job Market Is Turning Chilly for Recent US College Graduates

최근 미 대학 졸업자에게 노동 시장 ‘냉각’

- 노동 시장이 여전히 양호한 상황이지만 최근 미 대학 졸업자에게는 힘든 상황이다.
- 지난 9월, 최근 대학 졸업자들의 실업률과 미 평균 실업률의 차이는 2.8%로 벌어졌다고 어제 화요일 뉴욕 연준은 밝혔다.
- 최근 대학 졸업자 10명 중에 4명이 불완전 취업에 있다. 대학 졸업증이 필요하지 않은 일터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비율은 팬데믹 이후 최저치인 38%에서 늘어나고 있다.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

WSJ: Car-Loan Delinquencies Aren't Scaring Off Wall Street
자동차 용자 연체율에 월가 부담 느끼지 않는다

- 미국 소비자들의 자동차 용자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월가는 이를 우려하지 않고 있다.
- 현재 투자자들은 자동차 용자와 관련된 채권을 적극 매입하고 있으며, 이는 강한 미 경제 상황이 연체율 상승을 앞으로 억제하는데 베팅하고 있기 때문이다.
- JP모건 체이스의 데이터에 따르면 신용이 낮은 이들에게 가장 위험한 자동차 용자를 보증하는 채권 판매 규모는 올해 10월까지 작년 전체 기간보다 17% 증가했다.
- 한편 자동차 용자 채권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채권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투자자들은 높은 수준의 금리의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서둘러 매수하고 있다.

WSJ 기사

FinanceYahoo: Why Nvidia earnings could be a sink-or-swim moment for this bull market

엔비디아 실적 발표, 강세장에서 주요 시험대

- 반도체 부문이 지난 4개월간 미 주식을 주도한 가운데 엔비디아의 오늘 수요일 실적 발표는 현재의 미 강세장에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엔비디아의 실적을 통해 인공지능이 이끄는 주식에 대한 지속적인 성장 여부를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 이번 실적 발표는 또한 올해 2분기 이후 두 번째로 실적이 저조한 기술 업계 전반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 오늘 좋은 실적은 해당 업종의 S&P 500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다. 반면에 실적 저조는 투자자들을 위축시킬 수 있다.

FinanceYahoo 기사

[트럼프 행정부]

Bloomberg: Trump Team Targets Auto Mileage Rules He Blasted as 'EV Mandate'

트럼프, 내연차 연비 기준 완화한다

- 트럼프 팀은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의무' 정책을 비판하면서 새 승용차와 경트럭의 연료 효율화 요건을 완화하려고 하고 있다.
-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2030년 초까지 내연차가 갤런당 연비 50마일을 지킬 수 있도록 자동차 생산업체들에 연료 효율성을 요구해 왔다.
- 트럼프 팀은 이산화 탄소와 스모그 형성 화학물질의 차량 배출을 제한하는 연방 환경보호국 기준도 완화하도록 모색하고 있다.

- 기존 기준에 따르면 2032년 모델의 이산화탄소 배출 상한선은 2027년 허용치의 절반에 불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탄소 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자동차의 전기화를 시도하려고 했었다.
- 또 당초 오바마 행정부의 오는 2025년까지 새 차량의 경우 갤런당 연비를 50마일 이상 의무화한 방안을 트럼프는 1기 행정부 당시 2026년까지 갤런당 39마일 연비로 기준을 완화하기도 했다.

Bloomberg 기사

WSJ: Tariffs Aren't the Only Trump Threat Facing Asian Economies
아시아 경제에 트럼프 관세 정책 외에 위협 요소는

- 트럼프의 재선 이후 달러가 상승하고 있다. 트럼프의 광범위한 관세, 세금 감면, 불법 이민자 타격 등의 공약 때문이다.
- 이로 인해 연준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고금리로 달러의 가치는 높아지면서 아시아 중앙은행들의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 달러 대비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 약세는 자본 유출을 가속할 수 있다. 특히 주택 시장 붕괴로 경제가 둔화되고 있는 중국에 큰 도전이 될 수 있다. 위안화는 지난번 2018년과 2019년 때 10% 절하되었는데, 이번에 트럼프의 높은 관세 공약이 실현되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 특히 아시아 통화 달러 약세가 되면 에너지와 식품 등 수입품 비용을 상승을 키우는 인플레이 압력이 이들 국가에 발생할 수 있다.
- 달러 금리가 이들 지역보다 높을 경우 자본 유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P 모건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래 달러 강세 기간에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주식은 평균 13% 감소했다.
- 한편,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의 수요에 점차 의존하고 있다. 이들의 대미 수출 점유율이 지난 2018년 10월 11.7%에서 14.7%로 상승했다.

WSJ 기사

[주택]

Bloomberg: 'Difference Is Trump': American Homebuyers Brace for Rate Pain

높은 미 모기지율, 그대로 유지된다

- 미 대선 전, Redfin은 내년 모기지율을 평균 6.1%로 예측했었다. 하지만 대선 3일 만에 6.8%로 상향 조정했다.
- Redfin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Daryl Fairweather은 “트럼프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다. 시장이 불확실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 연준의 결정은 모기지율에 영향을 준다. 모기지율은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밀접하게 따른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플레이가 예상되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모기지율도 내려가지 않는다.
- 또한 경제학자들은 트럼프의 불법 이민자 추방으로 관련 주택 건설 노동력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노동력 부족으로 새로운 주택 건설이 어려워 주택 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다.
- Moody's Analytics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Mark Zandi는 "30년 고정 모기지율이 7% 정도에서 유지될 것이다. 모기지율이 내년 가을이나 그 이후까지 내려갈 것 같지 않다. 트럼프의 정책이 구체화되기 전까지 시장 상황은 불확실하다."라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오일]

Bloomberg: Oil Rises as Traders Weigh Geopolitical Risks, Rising Stockpiles

유가 상승... 지정학적 위험과 미국 비축량 증가 때문

- 유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 비축량 증가 신호 때문에 3일 연속 상승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74달러에 근접했다.
- 이번 주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사용 허가가 떨어지고, 러시아는 핵 무기 사용 조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새로운 핵 교리를 발표했다.
- 연방 에너지정보국에 따르면 미 원유 비축량이 지난주 54만5천 배럴 증가했다. 가솔린 비축은 2백5만 갤론 늘었다.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Bloomberg: Target Shares Tumble After Retailer Cuts Profit Outlook

Target 수익 전망 하향 조정

- Target이 연간 수익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Target은 소비자들의 의류와 가정용 제품 같은 비필수 품목에 대한 지출을 줄였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달 항만 파업을 대비해 비축한 추가 재고에 예상보다 큰 비용이 들었다고 밝혔다.
- Vital Knowledge의 분석가 Adam Crisafulli는 "Target의 실적이 부진하면서 월마트의 시장 점유율 확대라는 강점이 부각된다. 아직 소비자들은 까다롭고 검소한 소비를 하고 있다. Target의 부진은 Kohl's, 달러 제너럴, 달러 트리 같은 기업에도 좋지 않은 징조다."라고 말했다.

- Target 경영진은 연말 쇼핑 시즌이 시작되면서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식품 및 음료 판매가 분기 동안 증가했고, 뷰티 및 향수 제품이 특히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또한 날씨가 추워지면서 의류 판매도 개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Bloomberg 기사

CNBC: TJ Maxx parent says holiday shopping is off to a 'strong start,' but its guidance tells another story **TJ Maxx “연말 쇼핑 시즌 순조로운 출발”**

- TJ Maxx의 모회사 TJX Companies가 수요일 연말 쇼핑 시즌의 순조로운 출발을 발표했다. 하지만 주당 이익이 월스트리트 예상치인 1.18달러보다 낮은 1.12~1.14달러인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가가 하락했다.
- TJX는 11월 2일로 끝난 3개월 동안 순이익 13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작년 같은 기간 순이익은 11억9천만 달러였다.
- 매출도 지난해보다 약 6% 증가한 140억6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연말 쇼핑 시즌 동안 TJX의 매출은 2~3% 추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TJX CEO Ernie Herrman은 “4분기 출발이 순조롭다. 연말 쇼핑 시즌이 매우 기대된다. 매장과 온라인에서 TJ는 소비자들에게 뛰어난 가치와 영감을 주는 쇼핑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CNBC기사

Bloomberg: New York State Aims to Lower Drug Prices By Targeting Pharmacy Plans **뉴욕주, 약국 체인에 새로운 규제 시행**

- 뉴욕주 규제 당국이 처방 약 중개업체들을 억제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이번 달부터 시행한다. 투명성과 상호 경쟁 강화를 위해서다. 뉴욕주 금융 서비스부는 PBM(Pharmacy Benefit Manager) 산업에 투명성을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 PBM은 처방약의 비용 관리와 보험 청구 절차를 조율하는 분야이다. PBM은 제약 회사와 할인 협상을 하고, 약국에는 약을 제공하는 대가를 받는다. 대표적인 PBM으로 CVS, Cigna, UnitedHealth가 있다.
- PBM은 환자들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지역 약국들의 경쟁을 방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이제 PBM은 자사의 약물 목록과 네트워크 내 약국 디렉토리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PBM이 환자를 자사 제휴 약국으로 유도하는 것은 금지된다. 지역 약국들은 우편 주문 및 가정 배달 서비스가 허용된다.

Bloomberg 기사

NYT: Robots Struggle to Match Warehouse Workers on 'Really Hard' Jobs
창고 로봇은 아직 고도화되지 못했다

- 로봇들이 창고에서 점점 더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물건을 옮기거나 트럭에 올리고 내리는 일을 한다. 하지만 아직 모든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을 정도로 로봇이 발전하지 않았다.
- 예를 들어 '피킹'이 있다. 피킹은 많은 물건 중 원하는 물건을 꺼내기 위해 다른 물건을 치우는 작업이다. 아마존의 가장 발전된 로봇팔 Sparrow도 아직 인간의 피킹을 대체하지 못했다.
- 대신 로봇은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을 대신한다. 예를 들어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개발한 로봇팔 Stretch는 트럭에서 물건을 내리는 일을 맡았다. DHL은 Stretch한 대가 2교대 근무에서 근로자 4~6명과 같은 양의 일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아마존은 로봇이 적은 인원으로 더 많은 소포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창고는 구조적이고 예측하기 쉬운 환경이기 때문에 자율주행차에 비하면 물건을 옮기는 창고용 로봇은 만들기 더 쉽다.
- 또한 아마존은 로봇을 배치하면 로봇 감독과 유지보수를 위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고 말했다. 아마존은 Nashville 창고 시설의 근로자 2천5백명 중 약 100명이 로봇 관련 업무를 맡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한 창고 시설에 로봇 유지보수 직원이 200명 정도 있다고 밝혔다.

NYT 기사

[보고서]**미국 주식시장 '위험구간 진입' 경고...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도"**
모건스탠리·HSBC, 낙관 전망 유지하면서 경고도
투자자들도 여전히 낙관

미국 주식과 채권시장이 위험 구간에 진입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하지만 언제 하락세가 나올지 정확히 예측하기는 힘들어서 지금 바로 투자금을 회수하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도 못 된다.

로이터통신은 19일(현지시간) 시장 강세론자들조차 지금 미국 주식과 채권값이 비싸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장밋빛 전망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지만,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후에 큰 후유증이 나타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주 뉴욕 주식시장의 3대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1년 전 시작된 상승세를 이어갔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